

# 모빌리티 혁명 시대... 공간제약 뛰어넘는 융·복합기술 공유

## ‘서울모빌리티쇼’ 기자가담회

전세계 10개국 160여개사 참가 새 이동수단 미래 청사진 제시 다양한 제품·기술, 콘텐츠 부각 컨퍼런스·포럼·시승 등 다채

“서울모빌리티쇼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전반의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강남훈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서울모빌리티쇼’에 대한 주요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하드웨어 모빌리티와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모빌리티서비스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다양한 제품과 기술이 출품되며, 이를 통해 융·복합 전 사회로 탈바꿈한 모습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모빌리티쇼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동화 전환,



강남훈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서울모빌리티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모빌리티 혁명”이라 불릴 만큼 산업의 번영을 맞은 상황에서 이번 모빌리티쇼에서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최대 규모 모빌리티 산업전시회

인 ‘2023 서울모빌리티쇼’는 오는 30일 언론 공개를 시작으로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총 전시 규모는 5만 3541제곱미터(㎡)로, 지난 2021년 행사(2만6310㎡)보다 약 2배 이상 확대됐다. 전 세계 10개국 16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다양한 모빌리티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60% 증가한 수치다.

강 위원장은 “특히 산업 융·복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완성차를 넘어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산업군이 진화되고 있다”며 “과거 모터쇼가 B2C 모터쇼였다면, 모빌리티쇼는 B2B 차원에서 관련 기업들이 만나 기술을 교류,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하나의 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위는 2023서울모빌리티쇼의 주요 특징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콘텐츠 부각 ▲미래첨단기술로 모빌리티 산업 청사진 제시 ▲모빌리티 산업 견인 및 B2B 지원 강화 ▲시승행사 및 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다이나믹한 체험을 꼽았다.

우선 모빌리티 콘텐츠와 관련해 하드

웨어(Hardware) 부문은 ▲뉴모빌리티 ▲오토 메이커 ▲오토 파츠로 분류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봇릭스 등 뉴모빌리티 분야에서는 SK텔레콤, V-Space 등 총 9개사가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를 선보인다.

오토 메이커 부문은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12개 완성차 브랜드, 친환경차 8개사, 이륜차 3개사 등 총 23개사가 참여한다.

오토 파츠 부문에서는 글로벌 부품 공급 및 정비 서비스 에이씨델코(ACDelco) 등 19개사가 참가한다. 소프트웨어 부문은 자율주행, 융합기술, 인큐베이팅으로 분류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현대모비스, 오도엘 등 4개사가 참가하고, 융합기술 분야 4개사, 모빌리티 인큐베이팅 분야 등 총 17개사가 부스를 꾸린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부문에는 플랫폼, 모빌리티 케어, 모빌리티 라이프를 분류했다. 플랫폼에는 차보 모빌리티, 케타버스, 인벤티스 등 9개사, 모빌리티 케어 분야 4개사, 모빌리티 라이프 분야 12개사가 참가하여 모빌리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조직위는 미래첨단기술로 모빌리티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목표 아래 전시기간 중 기술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컨퍼런스와 포럼을 개최한다.

또 조직위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항공 모빌리티 특별관을 구성한다. 특별관에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을 비롯한 총 5개 기업이 참여해 UAM, 개인형 항공기(PAV), 고정밀 GPS 단말기 등 다양한 항공 모빌리티 콘텐츠를 소개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모빌리티 산업을 견인하고 B2B 지원도 강화하기 위한 장도 마련했다. 2021년 처음 시작한 ‘서울모빌리티어워드’도 참가대상과 범위를 넓혀 진행된다. 올해는 ▲모빌리티 하드웨어(승·상용차, UAM, 퍼스널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소프트웨어(MaaS, Saas 등 모빌리티 무형 서비스 등) ▲모빌리티 테크부품, 액세서리 등 제품의 신기술)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예선을 거쳐 전시 기간 내 최종 결선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SK(주), 美 ‘투로’ 지분매각... 동남아 투자 확대

5년만에 원금 두배이상 수익 달성 ‘쏘카 말레이시아’ 급성장 기대감 동남아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 육성

투자전문회사 SK(주)가 모빌리티 선진 시장인 미국에서 축적한 역량을 기반으로 동남아 모빌리티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

SK(주)는 개인간(P2P)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 ‘투로(Turo)’ 보유 지분 전량을 6750만 달러(약 881억원)에 매각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유 지분을 기존 주주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올 상반기 내 거래 종결 예정이다. 이로써 SK(주)는 지난 2017년 투로에 투자한 지 5년여 만에 투자 원금 3,500만 달러(당시 약 398억원) 대비 두 배를 넘는 약 221% 수익률(원화기준)을 달성했다.

투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P2P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으로 회사가 소유한 차량을 빌려쓰는 B2C(Business to Customer) 차량공유 모델과 달리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 렌터카 대비 낮은 가격과 인수·반납 등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SK(주)는 빠르게 성장하는 모빌리티



쿠알라룸푸르 외곽에 있는 방사 지역의방사소 평센터(BSC)에서 쏘카를 이용중인 고객 /SK(주)

플랫폼 시장에 주목해 2015년 한국 쏘카에 약 100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그랩(Grab), 투로 등 글로벌 각 지역별 1위 차량공유 및 모빌리티 기술 영역에 선도적으로 투자해 왔다.

SK(주)는 글로벌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와 동남아 시장에서 차량공유, 전기차 충전 플랫폼, 자율주행 솔루션 등에 투자를 강화 할 계획이다. 특히, SK(주)가 최대주주인 ‘쏘카(SOCAR) 말레이시아’를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동남아시아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SK(주)는 지난 2017년 한국 ‘쏘카’와

함께 말레이시아에 합작법인 ‘쏘카 말레이시아’를 설립하며 동남아시아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한 후, 2020년 쏘카 말레이시아 지분을 추가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현재 쏘카 말레이시아는 회원수 190만명을 돌파하며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확보한 말레이시아 1위 차량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월 평균 5천 명 수준이던 사용자 수가 최근 월 2만여 명으로 급증했다.

SK(주)는 기존 B2C 차량공유 사업 모델 ‘쏘카’에 미국형 개인간 차량공유 모델 ‘트레보(Trevo)’와 한국형 대리기사 모델 ‘버디드라이버(Buddy Driver)’를 합쳐 쏘카 말레이시아를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키웠다.

차별적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쏘카 말레이시아는 지난 2020년 3억명 가까운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진출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글로벌 사모펀드인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East Bridge Partners)와 말레이시아 다국적 기업 사임다비(Sime Darby) 두 곳으로부터 6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최빛나 기자 vitna@

## 15.6형 대화면에도 더 가벼워진 LG그램

두께 10.9mm, 무게 990g 불과

10년차를 맞은 LG그램이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는 가운데 더 얇고 가벼워졌다. LG전자는 LG그램 신제품이 가장 얇은 10.9mm 두께를 구현했다고 16

일 밝혔다.

15.6형 대화면으로도 종전보다 4.4mm나 적은 숫자. 그러면서 무게는 990g에 불과하다. 마그네슘 합금을 적용해 내구성도 높다.

성능도 충분하다. 인텔 13세대 프로

세서에 4세대 저장장치에 성능을 40%, 소비전력을 20% 줄인 LPDDR5까지 탑재했다.

디스플레이도 개선했다. 풀HD 해상도 OLED로 디지털영화협회(DCI) 표준 색 영역 DCI-P3를 100% 충족하는 풍부한 색 표현력을 자랑한다. ‘눈부심 방지&저반사’ 코팅으로 빛반사와 눈부심도 없다. /김재용 기자



삼성전자는 사운드바로도 글로벌 1위를 지켰다.

## ‘TV왕’ 삼성전자, 사운드바도 9년 연속 1위

17년 연속 TV 시장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가 사운드바에서도 9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16일 시장조사업체 퓨처소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점유율이 금액 기준 20.2%, 수량 기준 18.4%로 1위였다.

2014년 이후 9년 동안 기록을 이어간 것. 지난해 출시한 Q시리즈 등이 판매를 이끌었다. 높은 음향은 물론 디자인, 특히 사용 공간에 최적화하는 맞춤형 사운드 경험만족도가 높았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juk@

## 현대로템, 말레이 무인전동차 전량 운행

MRT에 49편성 납품 완료

현대로템이 말레이시아에서 수주한 무인전동차의 전량 운행에 들어간다.

현대로템은 1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철도 공기업 MRT에 납품 완료한 49편성의 무인전동차가 영업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입된 무인전동차는 2016년에 수주한 물량으로 지난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 중이다.

말레이시아 전동차 공급 사업은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인 외교 지원이 큰 몫을 맡고 있다. 특히 주말레이시아한국대사관은 MRT 2호선에 이어 3호선(서클라

인) 사업의 추가 수주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지 정부기관 및 발주처와 면담을 주선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MRT 2호선(푸트라자야 라인) 건설 공사는 송아이블로에서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까지 총 52.2km 구간에 37개 역을 건설하는 공사다. 특히 2호선 구간은 말레이시아의 중심가 및 유수의 명소, 행정수도를 연결하고 있어 교통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현대로템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세르당 차량기지에서 열린 2호선 2단계 구간 개통행사에 참석해 차량 시승행사를 지원했다. /양성운 기자